

“고향서 만나자” 약속...악몽의 세월 전녀

1면 ‘공점업 할머니’에서 계속

매주 수요일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는 요양보호사에게 잡뱃으로 머리를 빗겨 달라고 한다. 공 할머니를 2번째 돕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 ‘해남 나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단정하고 곱은 성품인 공 할머니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자가 올까봐 군중에서 나오는 목욕서비스는 극구 마다했었다.

“암만해도 사과 해야제. 나쁘게 하면 무장 나빠지제.” 오는 1일 아흔다섯 번째 생일을 맞는 할머니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70년 동안 기다렸다. 병원에서 공 할머니가 올해 안에 집으로 돌아가기

는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머니는 “몸은 이래도 내 뺨은 거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시위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김복동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할머니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미안함에서 하는 말이었다.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238명 중 생존자는 48명으로 줄었다. 지난 1월에는 화순의 한 병원에서 황선순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89세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올 들어 세상을 떠난 할머니만 7명이다. 남은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89.1세에 달한다. 최연소 피해자도 80세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공 할머니와 곽예남(90)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기다리고 있다.

공 할머니는 해남 나비 회원들과 요양원 화단을 거닐다가 보랏빛 엉겅퀴 한 떨기를 발견하고 “된장국 끓이면 맛나겠다”라며 민요 ‘날리리야’ 몇 소절을 읊조렸다.

“어제 청춘 오늘 백발 가는 세월을 어이하리~백옥같이 고운 얼굴 햇빛에 그을리기엔 말인가. 날 날리리 날리리야.” 노랫말이 그녀가 살아온 인생 같다.

“할머니 만나며 평화의 가치 깨달아”

가족이 된 ‘해남나비’ 회원들 매주 수요일 요양원 방문 나눔 장터 열어 성금 모금 “땅끝에 ‘평화비’ 세울 것”

“단팥빵, 배죽, 바나나 고르고... 아, 할머니가 쟤리 드시고 싶다고 하셨으니깐 잊지 말고!”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 ‘나비’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공점업 할머니’와 함께하는 ‘해남나비’(해남나비) 회원들은 장바구니를 한아름 들고 공 할머니가 있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지난해 8월 결성된 해남나비에서는 매주 수요일 회원 5~6명씩 할머니를 찾아가는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에 평화시위가 열리기 때문에 이날로 정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40~50대인 목사도, 지역생활협동조합 대표이사로 이 날만큼은 할머니 앞에서 재봉동이 된다. 반신 마비로 입조차 열기 힘든 할머니는 연신 ‘보고 싶었소’, ‘반갑소’를 노래처럼 되뇌었다.

2년 동안 해남나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공 할머니를 찾아가 말벗이 되었다. 소풍을 간 날까지 더하면 할머니와 함께 한 날은 족히 100일을 넘는다. 지난 6월부터 메르스 우려로 할머니를 직접 만나지 못한 두달 가량도 매주 요양원을 찾아와 주전부리를 드리고 갔다. 공 할머니의 93번째 생일을 함께 보냈던 원년 멤버 5명은 이제 지역 생협 조합원, 종교인 등 해남지역 주민 60여 명으로 회원이 늘었다. 공 할머니의 60명 아들딸·손주들은 할머니가 심심하지 않게 TV를 새로 장만해드리는가 하



5일 ‘해남나비’ 이명숙 대표와 김화수, 박승규, 은성남씨(왼쪽부터)가 공 할머니가 있는 요양원을 찾아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하고 있다. /해남=김진수기자 jeans@

만 할머니방을 청소하고 벽지를 새로 바르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나눔 장터와 콘서트를 열어 모금 활동을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사진 전시회와 서명운동을 함께 열어 해남나비의 행보를 응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또 일을 냈다. 공 할머니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만행을 폐해와 알리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땅끝 해남’에 평화비를 세우기로 한 것. 올해 안에는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는 의료진의 의견을 들은 이유도 있었다. 평화비는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과 비슷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해

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아이쿱 한울남도생협’ 등 해남지역 46개 시민단체가 평화비 건립에 뜻을 모았다.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인 오는 12월 10일에 맞춰 제막식을 열 수 있도록 모금운동과 지자체 협조를 구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해남나비 회원 박승규(50) 목사는 “못 사람들은 우리를 봉사단체로 여기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도움을 받고 있는 쪽은 오히려 우리”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고에서 비롯된 할머니의 지혜와 인덕으로 다시금 평화의 가치를 해남지역민들이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백희준기자 bhj@

여성독립운동가 266명 특별전

서대문형무소 ‘돌아온 이름들’...광주·전남 23명 포함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9옥사’ 건물에 광주·전남 지역의 여성독립운동가 23명의 이름과 약력을 적은 대형 전이 걸려 있다. 서울시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여성독립운동가 266명의 활동을 조명하자는 취지로 연 특별전 ‘돌아온 이름들’(사진)에는 광주·전남에서 ‘대한독립’을 외친 23명의 이름도 돌아왔다. 이들은 보존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굴한 여성독립운동가들이다. 그동안 여성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전시나 사업이 거의 없었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수 창무마을 출신으로 광주 수피아여고에 재학 중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윤형

숙(1900~1950) 열사 등 수피아여고 교사 2명(박애순, 진신애)과 학생 임진실, 하영자, 최수향, 김덕순, 조옥희, 김안순 등 9명의 이름도 올랐다. 특히 윤 열사는 1919년 3월10일 광주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군중집회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과정에서 일본 헌병 군대에 원발의 상단부를 절단당했지만 다시 일어나 오른팔로 태극기를 잡고 다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일화로 유명하다. 그래서 ‘윤형숙’라는 이름이 더 많이 불린다. 광주학생운동 지지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서울의 임경애 열사, 함경북도 회령의 윤천녀 열사도 이름을 올렸다.

민족독립과 여성해방을 취지로 한 비밀



결사단 ‘공주 소녀회’를 조직한 장경래(1913~1998)를 비롯, 광주 소녀회 회원 김귀선, 남협협, 박계남, 박옥련, 박재희, 박현숙, 장매성 열사도 포함됐다. 목포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광희주, 김옥실, 박옥전, 이남순, 주유금 열사와 나주 김안순 열사들의 이름도 등장한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23일까지 열린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전남 독서토론 열차학교 바이칼 호수 도착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6일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이동 중인 전남 독서토론 열차학교가 바이칼 호수의 알함손에서 한국의 평화 통일과 번영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평화 통일 번영 뜻이 행사는 13부족을 상징하는 언덕에서 촛장의 환대 속에서 후지리 마을 사람의 전통축하공연과 통일과 번영을 기원하는 오방색 리본 달기로 이어졌다. /러시아=박정욱기자 jwpark@

현대차그룹 15일 ‘광복 70년 신바람 페스티벌’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현대차그룹이 1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복 70년 신바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광복 70년을 맞아 기업이 주관하는 국민 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7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7곳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 대표 9개 기업이 주관하며 대규모 불꽃축제와 콘서트 형식으로 치러진다. 15일 광주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주관으로 오후 6시부터 4시간 여 동안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풍암호수 공원에서 열린다. 보조경기장에서는 뮤지컬 ‘영웅’ 갈라쇼와 함께 유명가수 축하공

연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이 끝나면 풍암호수공원에서 멀티미디어 ‘DJ불꽃쇼’가 이어진다. 콘서트장은 7천석 규모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이날 오후 3시부터 보조경기장 주변에서 창조경제 체험존 등이 선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이번 축제가 광복 70년을 기념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회복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정은 7일 강원도(네이버)에 이어 8일 제주(다음카카오·아모레퍼시픽), 14일 부산(롯데)·대구(삼성)·대전(SK), 15일 서울(LG·CJ)·광주(현대차) 순이다. /임동률기자 exian@

대법관 후보에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후임으로 6일 이기택(56·147)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서울 출신의 이 후보자는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 최고의 이론가로 손꼽히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제) 광주서초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공무원, 교사 32-58세
대기업 간부 36-5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출생 여성’ 희망 31-58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동 R/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투데이 경매

광주 광산구 쌍암동 근린시설 광주우편집중국 북측 인근에위치 1층 ~ 3층 건물 주차타워 포함 대지 3238㎡ 건물 3090㎡ 감청가 72억 2천 최저가 16억 5천

광주 북구 일곡동 근린 상가주택 사거리 코너 위치 지하1층 ~ 지상 5층 대지 755㎡ 건물 1360㎡ 감청가 16억 최저가 11억 2천

광주 북구 중흥동 대지 대인교차로인근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접 오피스텔 무인텔 적합 대지 3190㎡ (965평) 감청가 40억 8천 최저가 28억 2천

광주 광산구 첨단 무인텔 객실 22개 11:드라이브 인 방식 대지 1522㎡ 건물 1999㎡ 감청가 34억 5천 6백 최저가 24억 2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2015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171)	광주교육대학교(1271)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5. 9. 4(금) 09: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5. 9. 4(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5. 9. 5(토) 09:10 (고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5. 9. 7(월) 14:10 (중급반) ·월 목 02(반) 2015. 9. 7(월) 19:00 (특급반) ·목요일 오후반 2015. 9. 10(목)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5. 9. 12(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5. 8. 3.(월)~9. 5.(토)	2015. 8. 3.(월)~9. 12.(토)
수업기간	2015. 9. 4.(금)~2016. 2.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5. 9. 7.(월)~2016. 2.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원로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장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취득) 기회 부여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원로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장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선봉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620-4243 ·지도교수(선봉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